



〈5부〉 '귀어' 꿈을 이룬 사람들

영광 김원철·고속희 부부

중국산이 점령한 미꾸라지 시장 토종으로 15억 매출



중국산 물랑 공세에도 굳건하게 국내 미꾸라지 양식산업의 보루를 지켜가고 있는 김원철·고속희 부부.

/영광=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지난 21일 오후 영광군 법성면 대덕리에 위치한 '벨엘 영어조합법인'. 레미콘 트럭이 실새없이 줄을 지어 차례로 콘크리트를 쏟아내자 인부들이 이를 바닥에 고르게 펴는 타설 작업이 한창이었다.

김원철(54)·고속희 부부는 지난 6월부터 첨단 미꾸라지 양식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부지 500평 규모에 지름 7m 크기의 원형 수조 33개가 3열씩 줄을 지어 가지런하게 놓여 있다. 앞으로 수조위로 16개의 지붕을 씌울 예정이다.

10월초에 공사가 완료되면 사각형 웅덩이에서 키우던 미꾸라지 양식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내최초로 미꾸라지 종묘 대량생산=“앞으로 미꾸라지 성어 단계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5~6개월로 단축시켜 1년이면 2회전 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기존 축제식(築堤式) 미꾸라지 양식장(25×18m) 34개(6000여평)에서 연간 80t 생산하던 것을 첨단 양식시설을 본격 가동하면 연간 180t을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 양식시설은 지하 150여cm 깊이에서 끌어올린 지하수의 수소이온 농도(pH)와 용존산소 농도 등을 자동으로 맞추는 물론 먹이도 자동으로 급여한다. 또 태양열 패널에서 데워진 온수를 히트펌프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겨울철에도 미꾸라지를 출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기존 방식으로는 10월 하순부터 미꾸라지들이 동면(冬眠)에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철 출하가 어렵다.

김 대표는 미꾸라지 양식에 나서기까지 서른 살 무렵부터 20여 년간 흑염소→뱀장어→민물 토종어종(붕어·잉어) 등을 키우거나 양식했고, 한때는 자동차 회사에 시트를 납품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2008년 초 김 대표는 고향인 영광으로 귀어(歸漁)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지인의 추어탕 체인점을 방문했다가 중국산 미꾸라지를 재료

국내 첫 대량 종묘 생산 '수산 신지식인'

미꾸라지+시래기 함께 납품...소득 높아

첨단 양식장 완공되면 1년에 두번 생산

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충격력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산 미꾸라지를 구할 수 없다”는 업주의 말에 김 대표는 “말이 되는 소리냐?”라며 직접 미꾸라지 양식을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미꾸라지 치어 부화과 양식에 뛰어 들었다.

초기 시행착오를 거쳐 2010년 700만~800만 마리, 2011년 1700만~1800만 마리 등 본격적으로 미꾸라지를 생산했다. 이에 비례해 매출액도 2010년 13억원, 2011년 15억원을 달성했다. 김씨 부부는 치어판매, 성어양식과 함께 추어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무청 시래기를 함께하고 계약을 맺은 전문식당에 직접 공급해 소득을 증대시켰다.

귀어한지 3년이 지난해 11월, 김 대표는 국내 최초의 미꾸라지 대량 종묘(種苗)생산과 복합영양 소득 산업화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 신지식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산물 종자배양 활성화해= 100여평 규모의 미꾸라지 종묘 부화장은 2단으로 구성해 공간 효율도를 높였다. 미꾸라지 치어 생

산은 이른 봄에 자연산 성어를 채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수정을 거쳐 부화시켜 관으로 직접 연결된 3단계 수조에서 1개월간 키운 후 축제식 양식장으로 옮긴다. 10cm이상 크기의 미꾸라지 성어가 되 기까지 꼬박 16~17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값싼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미꾸라지 양식어민들에게 위기가 닥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간 미꾸라지 생산량은 400~500여t 정도인 반면 매년 중국에서 1만여t 넘게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산 생산량은 전체 소비량의 10%도 채 안되지만 김 대표는 국내 미꾸라지 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관련 수산물 원산지 관리법이 개정되며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후 3개월만 키우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문제다.

이전에는 7cm 이하 크기 미꾸라지를 수입한 후 1년여를 키워 '국내 이식용'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판매했지만, 법 개정 후 9~10cm 크기 미꾸라지를 수입해 3개월 가량 키운후 '국내산'으로 표기해 유통시키고 있다는 것. 미꾸라지 성어는 대개 10cm 이상일 때 출하한다.

국내산 미꾸라지 양식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는 김 대표는 “미꾸라지 원산지 표기가 바뀌며 거래처의 40%가 떨어졌다. 미꾸라지 양식어민들이 앞뒤가 안 맞는 정부 시책 때문에 '방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다. 국내 민물어종 양식산업이 중국산 때문에 다 끝났는데 미꾸라지만이라도 씌울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부부는 미래에 미꾸라지 양식단지 인근을 뜻깊이 하는 이들과 함께 토종 어종 박물관과 낙농체험 등 체험학습장으로 만들 꿈을 갖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kwangju.co.kr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어선·양식·수산물 가공업 등 창업

어가당 2억원·주택구입비 4천만원

전남 도내로 귀어하는 도시민들에게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귀어 후 안정적 어촌 정착과 어업기반 확대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 매년 1~3월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 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시행됐다.

지원 규모는 어가당 최대 2억원, 주택구입비는 4000만원 까지 지원하며, 연리 3%·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 분야는 ▲수산분야(어선어업·양식어업·수산물 가공·소금업 등) 창업자금 ▲농·어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체험농장·농·어촌 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농·어촌 주택구입과 신축시 용자지원 등이다.

귀어인이 수산업 창업자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산업 창업사업신청→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도 수산사무소, 수협)→지원대상자 선정·보고(수산사무소)→시·도별 사업량 배정(농식품부)→지원대상자 확정 보고·통보(수산사무소)→사업추진(사업대상자)→사업실적 확인(수산사무소)→자금대출(수협) 등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한편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까지 58명의 귀어인을 선정해 5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귀어 창업·주택구입 지원 대상자로 23 어가를 선정, 40억3000만원을 용자 지원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중·양식 분야 16어가 28억2300만원 ▲어선어업 분야 5어가 7억8000만원 ▲소금 생산 분야 1어가 2억원 ▲어촌비즈니스 분야 1어가 2억원이다. 문의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45)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첨단 미꾸라지 양식시설.

KF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성역 | 광송간도로

북고당 한약방

새우리병원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